

##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 2023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전년 대비 3.3배(2022년 53명 → 2023년 173명) 급증
- 경기도 파주·김포시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 지속 발생으로 경보 발령
-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 및 여행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붙임 2)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400명 수준으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환자는 국내 도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와 주로 열대열원충에 의한 해외유입 말라리아로 구분되며 총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 ~ 10월에 발생한다.

### <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2014년 ~ 2023년 6월 현재 >

구분/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명)	638	699	673	515	576	559	385	294	420	173
국내발생(명)	558	628	602	436	501	485	356	274	382	137
해외유입(명)	80	71	71	79	75	74	29	20	38	36

\* 2023년 통계는 6. 10.(23주차) 기준으로 잠정통계임

올해 23주까지(1.1. ~ 6. 10.) 말라리아 환자수는 총 173명으로 전년(53명) 대비 120명(3.3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2주차부터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https://npt.kdca.go.kr>) → 발간자료 → 주간소식지 →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매주 목요일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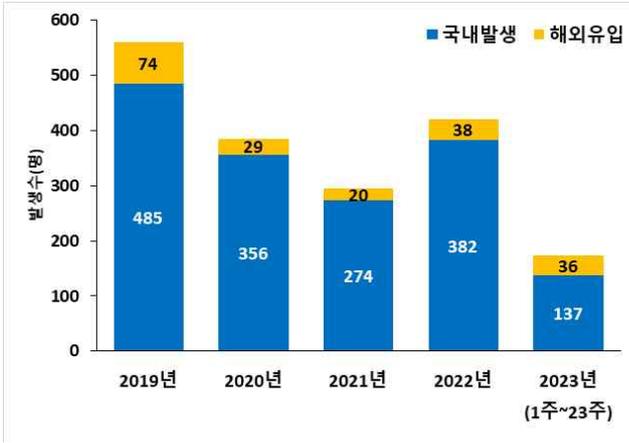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 환자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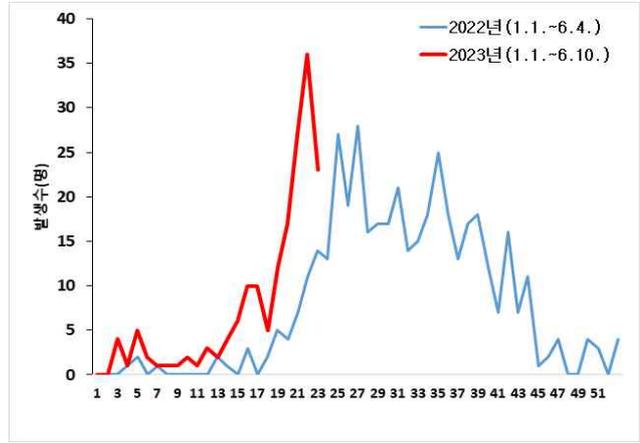


그림 2. 전년 대비 주별 발생 추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37명으로 전년(46명) 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 민간인이 78.1%, 군인이 21.9%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67.2%), 인천(10.9%), 서울(10.2%), 강원(5.1%) 순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 말라리아 추정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강화군), 강원(철원군)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 및 시·도 경보체계를 도입하였다. 시·도를 중심으로 군집추정사례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전파위험지역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이 중 시·도별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가 첫 발생 시 해당 시·도에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 군집추정사례 정의: 위험지역 내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발생 간격이 30일 이내 이고, 환자 거주지간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2023년 말라리아 관리지침)

현재까지 군집추정사례는 총 10건(경기 9건, 서울 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한 파주시 및 김포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난 6월 1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경보 발령 지역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언론매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해당지역주민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해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진단검사 실시 및 예방약(프리마퀸)을 제공한다.

해외유입 말라리아는 36명으로 전년(7명) 대비 5.1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유입되었다.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치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말라리아 발생 위험국가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귀국 후에는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위험국가 방문 사실을 알리고 진료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중증 말라리아 환자 진단 시 가까운 비축기관에 말라리아 치료제(비경구용 주사제) 배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 국가별 발생현황 및 약제내성 등은 2023년도 말라리아 관리지침(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지침) 참조

지영미 청장은 “올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야간활동 시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하고,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반드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말라리아 예방수칙 >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
- ◆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
- ◆ 말라리아 경보발령지역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복용할 것

- <붙임> 1.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잠재적 위험지역(2023년 기준)  
 2. 말라리아 질병 개요
- <별첨> 2023년 23주차 말라리아 주간 소식지

담당 부서 <총괄>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황경원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신나리 (043-719-7162)
			연구사	이소담 (043-719-7175)
담당 부서 <협조>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희일 (043-719-8560)
		담당자	연구사	신현일 (043-719-8525)

# 붙임 1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잠재적 위험지역(2023년 기준)

### □ 말라리아 위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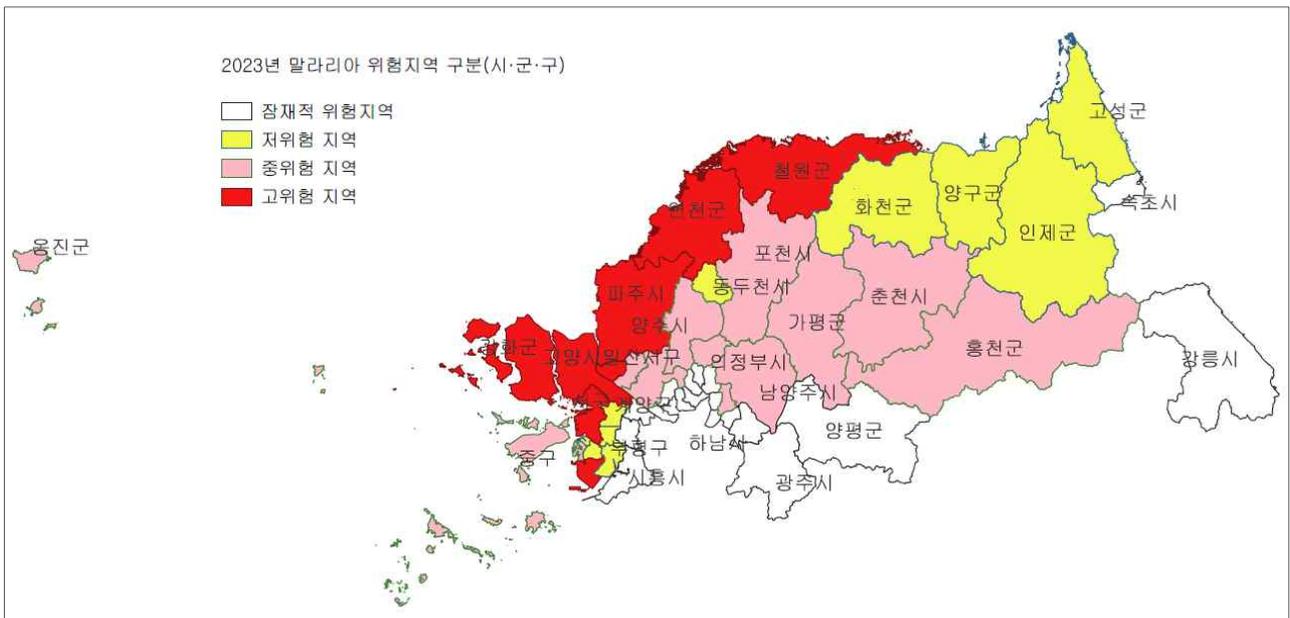
- 말라리아 퇴치사업 대상지역으로 인천, 경기·강원 북부 내 30개 시군구로 매년 환자발생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지역으로 구분

지역	분류	위험지역 시·군·구(30)
인천(1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13)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7)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말라리아 잠재적 위험지역

- 위험지역과 인접한 지역 중 최근 3년간 1건 이상 환자가 발생한 시군구

지역	분류	잠재적 위험지역 시·군·구(18)
서울(11)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경기(5)		부천시, 시흥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2)		속초시, 강릉시



## 붙임 2

## 말라리아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라리아는 열원충속(Genus <i>Plasmodium</i>)에 속하는 원충(<i>P. vivax</i>, <i>P. ovale</i>, <i>P. malariae</i>, <i>P. falciparum</i>), <i>P. knowlesi</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li> </ul>
질 병 코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급 법정감염병</li> <li>ICD-10 B50, B51, B52, B53, B54</li> </ul>
원 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lasmodium vivax</i> (삼일열원충), <i>Plasmodium falciparum</i> (열대열원충), <i>Plasmodium malariae</i> (사일열원충), <i>Plasmodium ovale</i> (난형열원충), <i>Plasmodium knowlesi</i>(원숭이열원충)</li> </ul>
감 염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얼룩날개모기속(<i>Anopheles</i>)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li> <li>* (국내) 총 6종의 얼룩날개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전파 능력이 확인됨</li> </ul>
전 파 경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얼룩날개모기속(genus <i>Anopheles</i>)의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li> <li>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li> <li>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li> </ul>
잠 복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으로 7~30일</li> <li>삼일열원충, 난형열원충의 재발은 모기에 물린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발생할 수 있음</li> </ul>
임 상 증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과 고열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남</li> <li>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남</li> <li>중증인 경우(주로 열대열말라리아) 황달, 응고 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나 섬망, 혼수 등의 급성뇌증이 나타남</li> <li>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조기진단이 중요</li> </ul>
치 사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음</li> </ul>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인 진단)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충체) 확인</li> <li>(확인 진단)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li> <li>(추정 진단)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원 검출(신속진단키트 포함)</li> </ul>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라리아 유형,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약제 선택</li> <li>해외여행객의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약물 내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제내성 열대열말라리아로 간주하고 치료할 것을 권고</li> </ul>
환자 및 접촉자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 및 접촉자 격리: 필요 없음      □ 혈액격리 필요</li> </ul>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li> <li>모기 기피 및 예방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li> <li>말라리아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치료종료 후 3년간 헌혈금지</li> </ul>